



판결로 확인하는 사건의 결과

교환을 도와줬더니 대금을 돌려달라는 거래처, 6,484만 원 청구를 막다.

물품대금 반환 청구 전부 기각

전부 방어

64,848,060원 및 이자 청구 기각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물품대금
원 고

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율

변 론 종 결 2022. 5. 11.

판 결 선 고 2022. 8.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1 -



01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필터를 납품한 의뢰인은 거래처로부터 약 6,484만 원의 물품대금 반환 청구를 받았습니다. 거래처는 제품 일부를 돌려보낸 뒤 교환 요청을 받아준 것이 계약해제 합의라고 주장했고, 검사 결과를 들어 제품 하자로 인한 해제도 주장했습니다.

거래처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교환에 협조한 과정이 현금 반환 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환과 계약해제의 차이, 실제 검사 대상과 납품 물건의 관계를 함께 설명해야 했습니다.

02 교환 동의를 대금 반환 합의인지를 다투다

재판에서는 제품을 다른 제품으로 바꿔 주는 것과 계약 자체를 없애고 돈을 돌려주는 것이 구분되었습니다. 교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자들이 계약해제와 원상회복에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하자 주장에서는 검사한 제품과 반환을 요구한 제품이 같은 납품분인지, 제품을 받은 뒤 언제 검사하고 통지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여러 차례 납품한 거래에서는 한 번의 시험 결과만으로 모든 납품분을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 살펴야 했습니다.

대응의 핵심

교환과 계약해제를 구분하고 납품분별 검사·통지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당신이 키운 사업입니다. 분쟁 앞에서 쉽게 내주지 마십시오.

교환 협조를 이유로 요구받은 약 6,484만 원. 해율은 반환 청구 전부를 막았습니다.

- 교환해 주겠다고 했는데 대금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 일부 제품의 시험 결과로 전체 납품 책임을 묻는다면?
- 여러 번 나눠 보낸 물품 중 어느 제품이 문제인지 다투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03 법무법인 해율의 대응

법무법인 해율은 납품회사를 대리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합의해제와 하자에 따른 해제를 각각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교환 승낙을 계약해제 승낙으로 볼 수 없고, 반환 대금에 관한 합의 내용도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자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시험에 사용된 제품과 문제 된 납품분 사이의 관계, 수령 후 검사·통지가 이루어진 시기를 검토하여 상대방이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요건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04 판결 결과와 의미

법원은 거래처가 제기한 **64,848,060원의 물품대금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의뢰인은 교환에 협조했다는 사정 때문에 현금 반환 책임까지 부담할 상황을 방어했습니다.

납품 분쟁에서는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설명만큼 당사자가 실제로 합의한 조치와 검사 자료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이 사례는 거래 이후의 대응 내용을 구분하고 제품별 납품·검사 경과를 대조해 반환 청구를 막은 결과입니다.

결과의 핵심

약 6,484만 원의 대금 반환 요구에 대해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잘할 수 있다는 변호사는 많습니다.

해율은 이미 해낸 결과로 답합니다.

교환 협조를 이유로 요구받은 약 6,484만 원. 해율은 반환 청구 전부를 막았습니다.

- 하자 통보를 언제 받았는지가 쟁점이라면?
- 반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계약해제에 동의했다고 한다면?
- 거래처의 일방적인 환불 요구로 사업자금이 위태롭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